

# 5기 전국의대생 대표자 협의의 총회 제안서

받는 즐거움 : 각 단위 여학생회를 비롯해서 투쟁하고자 하는 애국일꾼

주는 기쁨 : 5기 전국의대생 대표자 협의회

주문 : '미국의 전쟁책동 분쇄, 한총련 이적규정철폐, 국보법 철폐, 한총련 대의원 대회 평화적 개최 보장을 위한 투쟁'으로 받아안고 적극적으로 전 단위 모든 일꾼들이 투쟁을 조직화합니다.

## 내림비치

1. 전의대협 총회를 제안하며...
2. 전의대협 총회의 의의와 목표
3. 총회를 맞이하는 일꾼들의 자세와 관점
4. 일시 및 장소
5. 참가비
6. 선전의식화 방도
7. 대중조직화 방도
8. 총회 인간 및 일정

## 1. 전의대협 총회를 제안하며...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를 위해 서울시내 곳곳에서 투쟁하는 한총련 배만학도 전의대협 오십만 여학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랑스런 여러분들을 믿고 지금 서울에 돌아오고 있는 투쟁의 열기를 전의대협 총회로 더욱 불태울 것을 제안합니다.

5기 전의대협 총회는 전면적인 대정부투쟁, 반미투쟁을 선포하는 자리, 투쟁하는 여성민중과의 강위력한 연대로 99년 대격들을 만들겠다는 결의를 내어올과 동시에 전의대협을 사수·강화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대 성사투쟁이 장기화되고 노동자 대부쟁으로 심화되면서 배만학도들이 서울로 모이고 있는 과정에서 전의대협 총회 성사투쟁은 한총련 대의원대회 성사투쟁에 박차를 가하는 투쟁이 될 것입니다.

해신일꾼들과 대표자들이 기층에 전의대협 총회투쟁의 호기를 만들 여유도 없이 삼경을 한 문제나 서울지역의 학교마다 원천봉쇄되고 곳곳에 검문이 심한 분제봉이 걸리지만 이러한 현상에 매몰되어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어 가는 자세로 눈들이 보는 앞에서 대중적으로 투쟁하는 총회를 이루어 정권의 간담을 썩늘하게 만듭시다.

학교에 남아있는 모든 일꾼들은 우리학교에서 총회를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강의실, 도서관 할것없이 눈에 보이는 모든 학우들을 다

만난다는 결의로 한총련 대의원대회의 의의와 한총련의 이지규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이야기하고 또한 전여대협 총회 사수의 의지를 모아 학우들의 손 붙들고 상경할 수 있도록 합시다.

더 이상 핵심 몇몇 일꾼만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 뿐 아니라 대학생도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투쟁만이 살 길이며, 투쟁속에서 민중이 주인되는 새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여성민중의 등불됨을 선언하고 자주 민주 통일 여성해방 투쟁의 당면한 핵심과제인 전여대협 총회를 우리의 힘과 지혜로 성사합시다.

5기 전여대협 임시의장  
경기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최 선 영

## 2. 전여대협 총회의 의의와 목표

### 1) 5기 전여대협 의장님을 선출하고 옹립하는 자리입니다.

7기 한총련 투쟁의 과정에서 애국청년에 대한 가공할 만한 탄압이 지난 김영삼 정권시절의 수준을 뛰어넘는 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의원 탈퇴시한을 어느해보다 앞당기어 초장에 한총련을 의해 분열시키려하고 전 민주민족운동에까지 탄압의 검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는 여학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조선대에서는 총여학생회장님이 3월이 되기전 연행된 이후 또다시 총여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단위 여학일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 구속하고 있으며 5월이 가기전까지 남녀대협 산하 여학생일꾼들을 다 잡아갔다는 등 상식을 넘어서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학단위 대표자들에 대한 검거바람이 일고 여학생회의 활동을 저지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50만 여학우의 자주적 대중조직 전여대협을 두려워한 정권의 대응에 다름아닙니다. 즉 정권에서는 대표자를 중심으로 50만이 일심단결하여 99년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꽃을 피우고 투쟁속에서 살길을 찾는 여성민중의 형제이자 동지로 선봉에 선 5기 전여대협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속된 말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정권의 탄압의 칼날이 거세어 질수록 조직과 대표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어 투쟁하여야만 합니다. 하기에 이번 총회는 5기 전여대협 의장님을 중심으로 조직을 사수 옹호하고 전여대협운동을 결사관철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전여대협 50만 여학우의 자주적 대중조직을 세우고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전여대협은 여학우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결성된 조직인 만큼 50만 여학우의 자주적인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은 오직 전여대협밖에 없습니다. 여학생회가 있는 단위와 없는 단위의 여학우들의 삶이 확연히 다르듯이 전여대협 11년의 역사가 그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곡된 사회의 억압기제를 명확히 가리키며 투쟁으로 탄압을 깨어나가는 자주적인 여학우의 모습만이 한국사회에서 자주권을 가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속에서 있을 때만이 20여년의 외피를 벗고 자주적인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조직의 힘으로만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사회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기필코 99년에도 50만의 힘과 지혜로 건설된 자주적 대중조직으로, 여학생운동의 사령탑으로 전여대협의 그 위상을 만방에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전여대협 총회 성사를 기점으로 2천만 여성민중에 대한 등불임을 선언하고 여성민중의 삶을 위한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혀갈 것을 선언하고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청년여대생은 자신의 안일을 버리고 항상 여성민중의 품속으로 들어가 이중 삼중의 억압을 투쟁으로 개척하며 여성민중과 운명을 같이 하며 하였습니다. 늑대를 보면 차지 못하는 청년이기에 민중이 피가 신장에 흐르는 민중의 땀이기에 여성어업의 본질을 깨닫고 혁명적인 투쟁을 일구어 갈 수 있었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의 쇠고랑을 차고 미군의 사기를 높이기위해 성노리개로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 2천만 여성민중! 이제 우리에게 순종이요만 살라는 것은 인간된 삶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자주적인 인간으로 살기위해선 투쟁으로 쟁취해야만 합니다.

여성민중의 절절한 염원을 50만 여학우의 힘과 지혜로 이룩 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4) 지속적이고 다양한 여성민중과의 연대실현을 시작으로 자주, 민주, 통일, 여성해방투쟁의 든든한 동반자로 서나갈 것을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경제를 송두리째 파탄시키고 민생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주범 미국에 의해 민중 생존권을 비롯한 자주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수많은 여성들이 생명을 빼앗겼으며 조국은 50여년의 분단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의세에 아부굴종하고 민중의 정당한 투쟁을 난도질 하는 김대중 정권은 민족을 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 넘기고 민중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자신과 민족의 생존권은 주체의 힘으로 쟁취하고자 다양한 여성민중조직이 생성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은 공통된 요구로부터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연대를 통해 많은 성과를 남기었습니다. 여성민중과 청년여학도의 끈끈한 연대의 끈은 계속되는 공동투쟁으로 더욱 공고히 계속되고 있고 여성의 주적인 미국과 김대중 정권과의 결전에 함께 싸우는 혁명적 동지로 발전할 것입니다.

99년 민중연대 실현으로 자주, 민주, 통일, 여성해방투쟁에 이천만 여성과 함께 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5) 여학생운동의 당면한 과제를 도출하면서 총노선을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여학생운동을 단위에서 실천적으로 풀어나가는 단위 일꾼들이 여학생운동에 대한 명확한 상을 잡아내고 99년 5기 전여대협이 받아 안아야 할 여성민중의 요구를 합의하고 청년 여학도로써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합니다.

일꾼 하나 하나가 핵심이 되어 내가 바로 전여대협이라는 결의로 5기 전여대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내용인 총노선을 합의하고 결의하도록 합시다.

6) 5기 전여대협 의장님을 중심으로 당면시기 전쟁책동 분쇄, 조국 통일 완수 사대매국정권 김대중 정권퇴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진행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RSOI실전훈련이 진행되고 일본은 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군국주의 부활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책동의 음모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를 돌아켜보아도 알 수 있듯이 전쟁을 통해 수 많은 여성들이 희생당하고 치욕적인 수모를 겪어야만 했었는데,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이 지금 코스보 사태만 보더라도 곳곳에서 성폭행, 강간, 그리고 그 후 살인 등이 자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연일 보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중 정권은 민족의 딸들을 전쟁의 성노예로 만들려는 행동, 공창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을 서슴없이 자행하였습니다.

지금 당면한 정세는 전여대협의 투쟁을 요구합니다. 전쟁책동 분쇄, 조국통일 완수할 때까지 반민중 반여성정권 김대중 정권 퇴진의 그 날까지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7) 숨은 일꾼, 한총련의 모범, 전여대협 일꾼이 한자리에 모이고 함께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결의는 실천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각 단위에서 모범이 되어왔던 여학일꾼들 이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 여학우의 대표자로 또한 5기 전여대협을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핵심으로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분명 단위 여학생회의 발전전망의 청사진을 함께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도로 결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8) 각 대학 여학단위의 모범을 전파하고 전국화하는 자리입니다.

각 지역별 여학생운동의 처지와 조건이 달라 운동을 풀어나가는 방식 또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문제점은 한 단위의 모범이 전파되지 못하고 모범이 모범으로 총화되지 못하면서 그냥 사장되거나 머물러버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범을 전파하는 것은 투쟁에 있어 정형을 창출하고 집단적 혁신으로 이어가고자 함입니다.

99년 전여대협의 투쟁과정속에 단위마다 지역마다 수많은 모범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대투쟁, 일상적인 수급위원회, 비군기지를 기점으로한 반미투쟁, 대중적인 자주교류의 실현등...

어떤 자리가 되든 여학일꾼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면 목적의식적으로 서로의 모범을 전파하고 전국화하여 전여대협이 모범으로 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9) 5기 전여대협 건설의 의지로 7기 한총련을 사수 강화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전여대협 역사가 말해주듯이 언제나 한총련의 복무하며 최선두에서 투쟁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원칙을 고수하며 적들앞에 한치의 물러섬도 타협도 없이 강단있는 운동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여학일꾼들이었습니다. 5기 전여대협도 선배언니들의 혁명정신을 계승하여 7기 한총련 사수 강화를 투쟁으로 실천으로 결의해야 할 것입니다.

### 3. 총회를 맞이하는 일꾼들의 자세와 관점

한총련 대의원 대회의 평화적 개최를 가로막고 학교마다 시내마다 불심검문하는 등 서울곳곳에서 삼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정권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탄압하는 과립치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대학 여학생일꾼들의 전여대협 총회 사수를 위한 결의는 남달라야 할 것입니다. 전여대협 총회성사로 다시금 한총련 대의원 대회 평화적 개최와 노동자 총력투쟁의 결의를 높여야 합니다. 분명 한총련 대의원 대회가 그 해 한총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처음으로 논의하는 자리인데 근거도 없는 이적단체 규정은 어불성설이며 대의원 검거에 발악하고 대학마다 병력을 돌려싸는 형상은 도둑이 제발 저리는 꼴입니다. 5기 전여대협 총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적들의 탄압이 아무리 교묘하고 거세더라도 우리는 하고야 만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한총련과 전여대협이 가는 길을 막는 것은 체력소모며 민중의 승리는 이미 예정되었음을 전여대협 총회 성사로 알게 합시다.

### 4. 일시 및 장소

-일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 5월 2일

-장소: 추후 공고

### 5. 참가비

-대의원 회비: 7만원 (정기회비 5,000×12+참가비)

-참관인 회비: 5천원 (식비1,500×3+자료집)

-지참물:세면도구, 필기도구, 옷가지

### 6. 선전의식화 방도

- ▶참가단이 전여대협을 제대로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전여대협의 역사뿐 아니라 전여대협은 어떤 조직이며 5기 전여대협의 운동을 자보나 선전전을 통해 알려냅시다.
- ▶전여대협 총회 참가단을 꾸려 전여대협과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하습하여 기층 하우들에게 알리는 선전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참가단은 새내기 중심으로 꾸립시다.
- ▶학교를 출발하기전 선전전과 함께 잘 다녀오겠노라 인사하고 돌아와서 보고대회를 여는 등 총회에 함께 하지못하는 학우들과도 결의를 다질 수 있도록 합시다.

- . 전여대협 총회뿐 아니라 한총련 대의원 대회 평화적 개최보장과 노동자분들의 투쟁내용도 함께 선전화합니다.
- . 대학별로 대형플랑을 제작해 알려냅니다.
- . 전여대협을 알리고 역사를 설명하는 기획자보를 작성해봅니다.
- . 강의실 선전은 기본이고 강의실 찌라시등을 제작합니다.
- . 총회를 개최하는 대학에 수고했다는 플랑은 기본입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함께 하는 선전으로 총회 장소를 멋들어지게 장식해 봅시다.
- . 연대 단위를 광범위하게 조직화하여 연대투쟁을 조직화합니다. 연대 성명서 발표만으로도 굉장한 성과지점이 될 것입니다.

## 7. 대중조직화 방도

- ▶ 전여대협 총회 참가단을 모집합니다. 여성운동가로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인생관 강연이 있을 예정이오니 미래의 여성해방 전사가 될 새내기와 저학년 여학생들을 최대한 꾸립시다. 그렇게 하면서 총회를 통해 더 많은 자기대중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 ▶ 때 시기 제기되는 노동자, 농민, 빈민투쟁과 한총련 대의원대회 투쟁 참여와 자체적인 결의대회를 통해 참가학우들이 더욱 단련될 수 있도록 합니다.
- . 대의원을 조직화하는데 박차를 가합니다.
- . 여학생운동을 고민하고 있는 여학우들은 모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새내기여학우 대표자 모임들을 통해 새내기를 조직화합니다.
- . 골간 일꾼들도 총회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 8. 총회 안건 및 일정

### ■ 중앙마당 (대표자분들과 고학년일꾼)

- 1) 5기 전여대협 의장 선출  
전여대협 의장님 응립
- 2) 총노선 토론과 결의

### ■ 상설마당 (새내기를 중심으로 저학년일꾼)

- 1) 항무투 여성전사분의 인생관 강연
- 2) 강연내용 토론 및 설의
- 3) 투쟁선포시 및 서문 지역 선전전 (실천투쟁은 적극적으로 벌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 (Handwritten notes and scribbles)  
 새내기 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6 지

2-6 지